

2001년 제주세계 섬문화축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 성 보*

<목 차>

- I. 서 론
- II. 제주도내 시군별 관광수입 점유비율 분석
- III. 관광객 수요증가 및 소비·투자지출액 추정
- IV. 섬문화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V. 요약 및 결론

I. 서 론

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2001년 제2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축제는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행사비용이 거액 투자되므로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이 요구된다.

그러나 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제주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각 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사후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든지, 사전적인 예측에 의해 이뤄졌을 뿐, 개최 후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개최가 제주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고용, 소득, 총 산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가 제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관광객, 관광수입, 산출(생산), 고용, 그리고 소득부문으로 구분하여 계량적으로 계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측하고, 이를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II. 제주도내 시·군별 관광수입 점유비율 분석

관광산업의 점유비율 추정은 산업별 사업체의 종사자 수와 이러한 적용이 곤란한 1차산업 부문의 종사자 수는 별도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파악된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별 비율을 산정하고, 이러한 비율을 기준으로 제주도의 부분별 GRDP에 이를 곱하여 시·군별 GRDP를 산정했다.

시·군별 산업별 구성을 보면, 제주시는 1차산업의 비중이 7.5%로서 4개 시·군 가운데 가장 작은 반면에, 3차산업은 89.5%로 매우 높고, 제주도 전체의 69.7%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1차산업의 비중은 29.3%, 3차산업은 68.8%로 제주도의 전체 평균과 거의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군부지역인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1차산업의 비중이 50%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3차산업은 35~38%로서 제주도 전체의 절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도, 시·군별 관광산업으로 대분류된 업종을 합해서 도, 시·군별 GRDP로 나누어 계산된 관광산업의 비중을 추정했다. 제주도는 41.1%이며, 이를 시·군별

<표 1> 시·군별 산업별 구성(1999년기준)

구 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전국
1차산업	26.6	7.5	29.3	54.0	60.1	5.1
2차산업	3.7	3.0	1.9	7.3	4.3	32.9
3차산업	69.7	89.5	68.8	38.7	35.6	6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로 보면 제주시가 5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귀포시 37.3%, 북제주군 24.0%, 남제주군 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시·군별 관광산업의 비중(1999년 기준)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41.1%	53.5%	37.3%	24.0%	21.1%

제주도를 100.0%로 했을 경우 시·군별 관광산업의 비중은 제주시가 전체의 66.6%를 차지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서귀포시 16.4%, 북제주군 9.4%, 남제주군 7.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 시·군별 관광산업의 점유비율(1999년 기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66.6%	16.4%	9.4%	7.5%	100.0%

Ⅲ. 관광객 수요증가 및 소비·투자지출액 추정

1. 관광객 수요 증가 추정

1) 2001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기간의 실적 분석

2001년 제2회 제주세계섬문화축제를 관람한 총 입장객 수는 263,414명이다. 이 중 제주도민은 154,951명(58.8%)이고, 외국인 18,313명(7.0%)을 포함한 관광객은 108,463명(41.2%)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기본계획 상의 사업목표와 비교해 보면 입장객 유치목표 60만명의 43.9%를 달성하는데 그쳤다. 도민인 경우는 유치목표 20만명의 77.5%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관광객 유치는 목표의 27.1%밖에 달성하지 못하였고, 그 중 외국인 관광객도 18,313명이 입장하여 유치목표의 36.6%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표 4> 축제 입장객 내역(1998년, 2001년)

(단위:명, %)

구 분		1998년			2001년		
		목 표	실 적	달성율	목 표	실 적	달성율
총 입 장 객		800,000	441,290	55.2	600,000	263,414	43.9
출 신 지 별	제 주 도 민	200,000	242,709	121.4	200,000	154,951	77.5
	내국인관광객	504,000	219,743	43.6	350,000	90,150	25.8
	외국인관광객	56,000	18,779	33.5	50,000	18,313	36.6
유 · 무료별	유료 입장객	560,000	238,522	42.6	450,000	144,026	32.0
	무료 입장객	240,000	202,768	84.5	150,000	119,388	79.6

자료 :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내부자료.

2) 純관광객 및 有效관광객 증가 추정

섬문화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광객이 순수하게 증가하게 되는 부문을 추정해 내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부문을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하여 접근하기로 했다. 첫째 개념은 축제기간 동안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과 축제가 없었을 경우의 증감율을 비교하여 그 차이 만큼을 축제행사가 직접 유발한 관광객으로 추정해 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광객을 純관광객 또는 實관광객으로 명명하기로 하겠다. 둘째는 축제 참가자들의 목적별 성향을 파악하여 단순참가자들을 제외한 관광객을 추정해 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별 성향을 가진 관광객을 有效관광객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有效관광객의 개념은 축제 참가자들의 목적과 제주도 방문의 동기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섬문화축제 행사 참관이 주 목적인 경우는 100%, 부 목적인 경우는 일정부분을 감안해 주고 이를 합산하여 행사가 직·간접적으로 유발한 관광객을 추정해 내는 방식이다.

(1) 순관광객 추정

순관광객 또는 실관광객의 추정은 축제 바로 1년전의 '00년 5월 19일 ~ 6월 17일과 '01년 동기간의 내·외국인별 내도 관광객 수 차이 중 축제가 개최되지 않은 가장 근월의 감소율을 초과하는 관광객 수를 세계섬문화축제로 인해 직접 유발된 관광객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 근거는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국내·외 경기침체, 국내항공요금의 인상, '01년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절대적인 관광객 수는 감소했지만 섬문화축제가 열림으로써 그 감소율을 축소시켰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축제가 개최되지 않은 가장 근월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순관광객 수의 추정은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근월

설정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국내의 여타 상황을 검토해 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1998년 제1회 세계섬문화축제가 열렸던 기간(1998.7.18~1998.8.13)은 1997년 12월부터 불어닥친 IMF금융위기로 인해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었던 시기였다면¹⁾, 제2회 세계섬문화축제가 열렸던 기간(2001.5.19~6.17)은 국내적으로는 나름대로 IMF금융위기를 벗어나는 듯 했지만,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이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길목에 서 있는 시점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직종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변화추이를 보면 1999년 3/4분기 이후 소득의 증가율이 높게 났던 것이 2000년 4/4분기부터 그 성장률이 떨어지더니 2001년 2/4분기에는 경상가격 전년대비 4.7%~7.9% 상승에 그쳤다. 이것은 실질소득 개념으로 보면 단지 0.8% 증가에 그친 것이고, 경상가격으로는 전분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국인 출국자도 '98년 12월 이후 30%~60% 성장을 보여왔지만, 2000년 10월 이후 거의 1/4 수준으로 감소하더니 축제가 시작된 5월 경에는 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²⁾. 그리고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던 외국인 입국자도 2001년 2월 이후 2001년 6월까지 전년 대비 -1.0%를 기록하는 등 절대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주었다³⁾.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1년 3월 20일과 4월 2일부터 각각 12.1%와 11.8%씩 국내선 항공요금을 인상했다. 이러한 요인도 제2회 세계섬문화축제의 관람객 유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서 항공요금 인상이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⁴⁾결과에 따르면, 1% 항공요금의 인상은 내국인 관광수요를 0.5491%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평균요금 인상을 12.1%를 적용하면, 내국인 관광객은 6.64%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을 반영하여 2001년 세계섬문화축제기간⁵⁾에 입도한 내국인 관광객은 2000년 동기간에 비해 오히려 4,524명이 감소하여 -1.29%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외국인은 215명 정도 증가하여 0.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1) 이러한 사실은 통계청이 분기별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직종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증가율이 축제기간이 열렸던 1998년 3/4분기에는 직종에 따라 -183%에서 -122%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될 수 있음.
- 2) 제1회 세계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내국인의 출국 감소율은 1997년 12월 -452%를 시작으로 1998년 1월에는 -536%로 최고의 감소율을 기록하였고, 축제가 열리는 1998년 7월, 8월까지 감소율은 -40%대를 유지하였음.
- 3) 제1회 세계섬문화축제와 관련한 외국인의 입국 추이는 IMF금융위기를 전후해서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음.
- 4) 제주발전연구원, “항공요금 인상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1. 3. 내부분석 자료. 추정방법은 1981년에서 2000년도까지의 내국인 관광객수와 항공운임자료를 이용하여 計量經濟的 기법을 적용한 결과임.
- 5) 입도한 관광객을 추계함에 있어 기간을 축제 시작 하루전부터 종료 전날까지로 잡은 것은 그 날 입도해서 하루 정도 걸릴 수 있는 축제를 관람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것임.

<표 5> 축제기간의 입도 관광객의 증감

(단위 : 명)

구분	제2회 섬문화축제기간의 관광객 수				제1회 섬문화축제기간의 관광객 수			
	2000년	2001년	증감	증감율	'97년	'98년	증감	증감율
내국인	350,905	346,381	△4,524	-1.29%	480,295	372,285	△108,010	-22.5%
외국인	27,103	27,318	215	0.79%	14,816	20,891	6,075	41.0%

그러면 근월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합리적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위에서 국내전체의 상황과 양항공사의 항공요금 인상시점을 전후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첫째, 내국인 관련 기준 월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양항공사가 국내선 요금인상을 하기 전인 4월이전을 기준으로 두 가지 경우를 가정했다. 하나는 1월~2월의 평균감소율인 -0.3%와 1월~3월의 평균감소율인 -1.2%이다.

둘째, 외국인 관련 기준 월은 2001년 1월의 전년대비 58%를 증가하는 이상치를 제외한 2월부터 섬축제가 개최되기 전인 4월까지의 평균을 이용하여 두 가지 경우를 상정했다. 하나는 2월~4월의 평균감소율인 -10.3%와 3월~4월의 평균감소율인 -6.3%이다.

내도관광객의 감소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경기침체, 가뭄, 국내선 항공요금인상이고, 증가요인으로는 섬문화축제기간에 열린 제1회 전국생활체육대회⁶⁾였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순관광객 증가율 추정(%)

구분	섬축제 바로 이전의 증감율 (A)	항공료 인상효과 (B)	축제가 없을 경우의 가상 증감율 C=(A+B)	실제증감율 (D)	순관광객 증가율 E=(D-C)
내국인	-0.3	-6.6	-6.9	-1.3	5.6
	-1.2	-6.6	-7.8	-1.3	6.5
외국인	-6.3	-	-6.3	1.0	7.3
	-10.3	-	-10.3	1.0	11.3

<표 7> 제2회 섬문화축제기간중의 순관광객 수 추정

6) 전국생활체육대회(2001.6.15-17)는 제주도 전체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거나, 첫째 목적이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섬축제로 인해 증대되는 순관광객 추정에서는 차감요인으로 작용함.

구분	섬축제기간 (2000년)	축제없을 경우 관광객수*(A)	섬축제기간 (2001년)(B)	생활체육대회 참가자(C)	순관광객 (B-A-C)
내국인	350,905	326,552	346,381	6,631	13,198
	350,905	323,394	346,381	6,631	16,356
외국인	27,103	25,404	27,318	-	1,914
	27,103	24,325	27,318	-	2,993

주) *축제가 없을 경우의 관광객수는 2000년의 섬축제기간의 관광객수에 섬축제가 없을 경우의 가상증감율을 감안하여 계산된 것임.

<표 8> 섬축제가 없을 경우의 관광객 증감율 시나리오(%)

구분	시나리오 I 관련	시나리오 II 관련	시나리오 III 관련	시나리오 IV 관련
내국인	-0.3	-0.3	-1.2	-1.2
외국인	-6.3	-10.3	-6.3	-10.3

시나리오는 앞에서 서술한 내국인과 외국인 관련 2개의 경우를 상정하여 이들을 조합한 총 4가지의 경우를 구성했고, 이들과 관련된 내·외국인 순관광객 수를 추정하였다.

<표 9> 시나리오별 내·외국인 순관광객 수 추정(명)

구분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시나리오 IV
내국인	13,198	13,198	16,356	16,356
외국인	1,914	2,993	1,914	2,993
합계	15,112	16,191	18,270	19,349

(2) 유효관광객 추정

축제나 월드컵경기와 같은 이벤트 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 참가자의 몇 %를 직접적인 효과로 보아야 하는지를 산정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한 대부분의 연구는 관람객 또는 입장객의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그 효과는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높고 앞절에서 추정한 순관광객의 형태로 접근한다면 일반적으로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약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유효관광객인데, 이는 축제 참가자의 목적과 제주도 방문동기를 연결시킴으로써 축제 참가자들 중에 유효한 관광객을 추정해 이를 효과 분석에 이용하는 관점이다.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참가목적이 순수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부수적인 목적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제주도에 관광왔다가 우연히 방문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

<표 10> 축제 참가 관광객의 목적별 구분

구 분	1998*		2001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첫째 목적이었다	37	31.4	76	21.3
부수적인 목적이었다	50	42.4	176	49.4
우연한 방문이었다	31	26.3	104	29.2
계	118	100.0	356	100.0

주) *는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가 1998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에 참가한 512명의 관람객중 제주도민을 제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만을 발췌한 것임.

이러한 설문 결과 중 제주도 방문의 첫째 동기가 섬문화축제라고 응답한 사람은 100% 모두 유효관광객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어느 정도를 유효관광객으로 분리해 낼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관광객들이 평균적으로 섬문화축제장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2박 3일(2.5일) 체류시간의 일정 비율을 고려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축제장에 참가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축제장안에서 평균 3.96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루 전체 관람시간을 10시간으로 가정하면 1일의 40% 정도를 소비한다고 전제하고 그 비율 만큼을 유효관광객의 범주로 분류했다. 그러므로 유효관광객 비율은 첫째 목적이라고 대답한 비율인 21.3%와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대답한 49.4%의 7.8%를 감안하면 전체 관람객의 29.1%이다.

이러한 유효관광객 비율은 제1회 때의 39.9%에 비하면 약 10% 가량 떨어지는 수준이다.

<표 11> 관람객의 축제장 안에서의 소비시간

구 분	1998		2001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2시간미만	26	5.8	50	13.8
2-4시간	178	39.5	190	52.5
5-7시간	188	41.7	98	27.1
8-10시간	47	10.4	19	5.2
10시간이상	12	2.7	5	1.4
합계	451	100	362	100.0
가중평균	4.95시간		3.96시간	

자료 : (사)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 평가보고서』, 1998.8의 설문

조사 결과를 재편집한 것임. 2001축제인 경우는 축제참가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임.

<표 12> 시나리오 V (유효관광객)

(단위 : 명, %)

구 분	축제참가 관광객수	유효관광객 비율	유효관광객수
내국인	90,150	29.1	26,233
외국인	18,313	29.1	5,329
계	108,463		31,562

이러한 축제 참가 중 유효관광객 비율과 축제기간의 방문객을 이용하여 유효관광객 시나리오 V를 구성하였다.

2. 관광소비지출액 추정

1) 국내 여행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 산출

본 연구에서는 섬문화축제에 참석할 관광객이 여행형태별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1990~2000년 동안의 여행형태별 내국인 관광객 점유율인 일반단체 19.42%, 수학여행 8.28%, 신혼여행 11.97%, 가족여행을 포함한 개별 기타 60.33%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국내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을 계산했다. 1999년 기준(2.5일 체제기준) 평균 290,959원(2000년 기준 297,051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국내여행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1999년 기준)

여행 형태	소비액(원)	'90-'00평균 여행형태별 점유율(%)
일반 단체	261,175	19.42
수학 여행	137,544	8.28
신혼 여행	580,204	11.97
개별 기타	264,213	60.33
합 계	1,243,136	100.0
국내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2.5일기준)	290,959(원)	
	297,051(원)*	

* 2000년 기준 평균소비액임. 추정방법은 1999년 대비 2000년의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상승율 2.09%을 감안해 계산된 것임.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2000.2.

2) 국외 여행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 산출

국외 여행객의 경우는 일본인과 중국계, 영어권 관광객으로 나누어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에 참석할 관광객이 국가별로 추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1995~2000년 동안의 국가 권역별 점유율인 일본권 64.5%, 중국권 29.1%, 영어권 6.4%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외국인 1인당 평균 소비액을 계산했다. 1999년기준(2.5일 체재기준) 평균 1,562,636원(2000년기준 1,595,355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국외 여행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1999년기준)

구 분		소비액(원)	'95-'00평균 국가권역별점유율(%)
외국인 소비액	일본계(교포,일본)	2,165,561	64.5
	중국계(홍콩,대만,중국,싱가폴)	473,007	29.1
	영어권(미국,영국,독일,러시아등)	440,683	6.4
계			100.0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2.5일기준)			1,562,636(원)
			1,595,355(원)*

주) * 2000년 기준 평균소비액임. 추정방법은 1999년 대비 2000년의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상승율 2.09%을 감안해 계산된 것임.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2000.2.

<표 15> 관광객의 산업연관표 분류상 지출비율(%)

구 분	도소매	음식및숙박	운수 및 보관	사회및기타서비스	계
내국인	13.9	41.1	17.7	27.2	100.0
외국인	24.6	24.7	4.8	45.9	100.0
계	17.3	36.0	13.7	33.0	100.0

주) 도소매=쇼핑비, 음식 및 숙박=숙박비+식사비, 운수 및 보관=교통비,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레저스포츠+오락·유흥비+기타경비로 산출되었음.

관광객의 산업연관표 분류상 지출 비율을 구하기 위해 먼저, 1999년도 기준으로 관광객 세분시장별 총 지출액을 계산하여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고, 이러한 결과를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⁷⁾에서의 38개 산업부문의 지역산업연관모형에 대입하기 위해 관광객 항목별 지출 비율을 재추계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7) 고성보·김태보·이돈재,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1999.

지출비율에 이미 앞에서 구한 내·외국인의 1인당 평균지출액을 곱하여 부문별 지출액을 계산했다.

<표 16> 관광객 1인당 산업연관표 부문별 지출액(원/2000년기준)

구 분	도소매	음식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사회 및 기타서비스	계
내국인	41,290	122,088	52,578	80,798	297,051
외국인	392,457	394,053	76,577	732,268	1,595,355

3) 축제참가 도민의 평균 소비지출액 산출

축제에 참가한 도민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산출하기 위해 '01년 세계섬문화축제장에서 의 소비 경비를 추정한 결과 입장권을 제외한 지출액은 28,900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경비지출 대상을 지역산업연관모형의 38개부문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식사 및 음료비는 음식점 및 숙박부문으로, 쇼핑비는 도소매업부문으로, 유흥비는 사회 및 기타 서비스부문으로, 캠프장비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이렇게 조정된 부문에 1인당 지출액에 부문 비율을 곱해 1인당 부문별 지출액을 산정하였다.

<표 17> 축제장내에서의 경비지출의 산업연관표상 분류(2001년)

구 분	관광객		제주도민	
	비율(%)	지출액(원)	비율(%)	지출액(원)
도·소매	19.7	6,600	24.5	7,081
음식점 및 숙박	71.9	24,086	61.4	17,745
사회 및 사업서비스	4.4	1,474	10.7	3,09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4.0	1,340	3.4	983
계	100.0	33,500	100.0	28,900

자료 : 본 분석결과는 2001년 6월 기준이고, 산업연관효과분석의 기준년도로서 기간차가 1년미만이므로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분석에 이용하였음.

3. 축제 관련 예산투자의 산업별 분류

2001년 세계섬문화축제와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00년 10.3억원, 2001년 71.3억원으로 총 81.6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중에서 많이 지출된 부문은 주제공연 작품제작비 등이 38.5억원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설비비 14.2억원(17.4%), 홍보비 13.3억원(16.3%)의 순이다.

산업연관표상 투자액 분류표를 작성하였다. 총 예산 81억 6천 1백만원 중에 도내 투자액으로 분류된 것은 52억 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8> 산업연관표상 투자액 분류

산업 분류	번호	부문분류	산업연관표상 부문분류번호	도내투자액*
1차 산업	7	화훼 및 비식용작물	화훼작물	150.0
2차 산업	15	섬유가죽제품	마직물	25.9
	17	인쇄, 출판 및 복제	인쇄,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	214.0
	19	화학제품	의약품	0.9
	24	전기전자기기	전구 및 조명장치, 기타전자표시장치, 음향기기,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6.1
	26	수송장비	특장차	4.4
	27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기타가구, 모형 및 장식용품, 기타제조업제품	303.6
3차 산업	28	전력, 가스 및 수도	화력, 수도	22.4
	29	건설	기타비주택, 건축보수, 상하수도 시설, 전력시설, 기타건설	891.7
	31	음식점 및 숙박	음식점, 숙박	718.1
	32	운수 및 보관	도로여객운송, 항공운송	842.7
	33	통신 및 방송	우편, 전신, 전화, 방송(산업)	629.0
	3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광고, 청소 및 소독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270.9
	37	교육 및 보건	의료 및 보건	1.2
	38	사회 및 기타서비스	문화서비스(기타), 자동차수리서비스, 기타개인서비스, 사무용품, 분류불명	1,019.2
계				5,250.0

*) 산업연관효과분석은 2000년도 기준가격으로 작성될 예정이므로 2000년과 2001년의 단순합계로 계산되었음.

자료 : 고성보·김태보·이돈재,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1999.12, pp.119-122기준 적용 작성.

IV. 섬문화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1. 순관광객 및 유효관광객 증대에 미치는 효과

섬문화축제로 인해 증대된 관광객 추정은 Ⅲ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접 유발된 관광객을 의미하는 순관광객⁸⁾(시나리오 I ~ IV)과 축제장에 참가한 사람들의 방문목적을 감안한 유효관광객(시나리오 V)의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먼저 섬문화축제가 순 관광객 증대에 미친 효과는 내국인인 경우는 13,198명(시나리오 I, II)~16,356명(시나리오 III, IV), 외국인인 1,914명(시나리오 I, III)~2,993명(시나리오 II, IV)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섬문화축제 개최에 따라 직접적으로 유발된 전체 관광객의 증대 효과는 15,112명(시나리오 I)~19,349명(시나리오 IV)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섬문화축제가 유효관광객 증대에 미친 효과는 내국인인 경우는 26,233명, 외국인인 5,329명으로 전체 31,562명으로 추정되었다. 즉 섬문화축제 개최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전체 관광객은 직접적인 순관광객의 증대에 비해 약 1.6배~2.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2001년 축제가 관광객 증대에 미치는 효과

(단위 : 명)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전체 관광객 증가 추정치
순관광객	시나리오 I	13,198	1,914	15,112
	시나리오 II	13,198	2,993	16,191
	시나리오 III	16,356	1,914	18,270
	시나리오 IV	16,356	2,993	19,349
유효관광객	시나리오 V	26,233	5,329	31,562

2. 관광수입 증대에 미치는 효과

관광객의 증가는 관광객의 지출 증대로 이어져 제주도 입장에서는 관광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먼저 순관광객개념(시나리오 I ~ IV)인 경우, 관광수입 증대효과는 69.7억원(시나리오 I)~96.3억원(시나리오 IV)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광수입 증대액은 축제의 총 지출예산 81.6억원의 0.85배에서 1.18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유효관광객개념(시나리오 V)인 경우, 관광수입 증대효과는 내국인 77.9

8) 순관광객으로 접근한 경우는 그 효과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함.

억원, 외국인 85.0억원으로 총 16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제의 총 지출예산인 81.6억원의 2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것은 설문화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더 유인할 수 있다면,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29만 7천원과 159만 5천원이 각각 증대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0> 2001년 축제가 관광수입 증대에 미치는 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순수 관광수입증대액
순관광객	시나리오 I	3,920.5	3,053.5	6,974.0
	시나리오 II	3,920.5	4,774.9	8,695.4
	시나리오 III	4,858.6	3,053.5	7,912.1
	시나리오 IV	4,858.6	4,774.9	9,633.5
유효관광객	시나리오 V	7,792.5	8,501.6	16,294.2

<표 21> 관광수입 증대액의 시·군별 점유 추정치

단위 : 백만원

구 분	순수 관광수입증대액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0.666	0.164	0.094	0.075
순관광객	시나리오 I	4,644.7	1,143.7	655.6	523.0
	시나리오 II	5,791.1	1,426.0	817.4	652.2
	시나리오 III	5,269.4	1,297.6	743.7	593.4
	시나리오 IV	6,415.9	1,579.9	905.5	722.5
유효관광객	시나리오 V	10,851.9	2,672.2	1,531.7	1,222.1

설문화축제에 따른 관광수입 증대의 시·군별 점유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제주시는 66.6%의 비율을 차지하므로 46.4억원(시나리오 I)~108.5억원(시나리오 V), 서귀포시는 16.4%의 비율을 차지하므로 11.4억원(시나리오 I)~26.7억원(시나리오 V), 북제주군은 9.4%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므로 6.5억원(시나리오 I)~15.3억원(시나리오 V), 남제주군은 7.5%의 비율인 5.2억원(시나리오 I)~12.2억원(시나리오 V)이 된다.

3. 지역생산, 고용 및 소득증대에 미치는 효과

1) 지역생산(산출)에 미치는 효과⁹⁾

먼저 순관광객개념(시나리오 I ~ IV)인 경우, 산출증대효과는 231.9억원(시나리오 I)~269.2억원(시나리오 IV)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출증대 효과는 축제의 총지출 예산인 81.6억원의 2.8배에서 3.3배에 해당된다.

<표 22> 2001년 축제가 지역산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순관광객	시나리오 I	5,462.9	4,298.6	6,371.6	7,065.5	23,198.6
	시나리오 II	5,462.9	6,721.9	6,371.6	7,065.5	25,621.9
	시나리오 III	6,770.0	4,298.6	6,371.6	7,065.5	24,505.7
	시나리오 IV	6,770.0	6,721.9	6,371.6	7,065.5	26,929.0
유효관광객	시나리오 V	10,858.3	11,968.2	6,371.6	7,065.5	36,263.6
1인당 또는 1단위효과		0.414	2.246	0.041	1.346	

다음으로 유효관광객개념(시나리오 V)으로 접근한 경우, 산출증대효과는 362.6억원으로 축제의 총지출액 81.6억원의 4.4배 규모이다. 이를 세분하면, 내국인 108.6억원, 외국인 119.7억원, 제주도민 63.7억원, 시설투자 70.7억원이다.

이것은 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지역산출에는 41만 1천원과 224만 6천원의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입장객 1명당 4만 1천원, 시설투자는 1백만원당 134만 6천원의 지역산출이 증대되는 셈이 된다.

섬문화축제에 따른 지역산출 증대의 시·군별 점유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제주시는 66.6%의 비율을 차지하므로 154.5억원(시나리오 I)~241.5억원(시나리오 V), 서귀포시는 16.4%의 비율을 차지하므로 38.0억원(시나리오 I)~59.5억원(시나리오 V), 북제주군은 9.4%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므로 21.8억원(시나리오 I)~34.1억원(시나리오 V), 남제주군은 7.5%의 비율인 17.4억원(시나리오 I)~27.2억원(시나리오 V)이 된다.

<표 23> 지역산출에 미치는 효과의 시·군별 점유 추정치

(단위 : 백만원)

9)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부록>에 게재하였고, 여기에는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나타냈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0.666	0.164	0.094	0.075
순관광객	시나리오 I	23,198.6	15,450.2	3,804.6	2,180.7	1,739.9
	시나리오 II	25,621.9	17,064.2	4,202.0	2,408.5	1,921.6
	시나리오 III	24,505.7	16,320.8	4,018.9	2,303.5	1,837.9
	시나리오 IV	26,929.0	17,934.7	4,416.4	2,531.3	2,019.7
유효관광객	시나리오 V	36,263.6	24,151.6	5,947.2	3,408.8	2,719.8

2)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

먼저 순관광객개념(시나리오 I ~ IV)인 경우, 고용증대효과는 1,187명(시나리오 I) ~ 1,373명(시나리오 IV)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효관광객개념(시나리오 V)인 경우, 고용증대효과는 1,842명으로 순관광객개념으로 접근한 것에 비해 약 1.3배~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2001년 축제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단위 : 명)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순관광객	시나리오 I	290.3	206.3	397.3	293.4	1,187.3
	시나리오 II	290.3	322.5	397.3	293.4	1,303.5
	시나리오 III	359.8	206.3	397.3	293.4	1,256.7
	시나리오 IV	359.8	322.5	397.3	293.4	1,373.0
유효관광객	시나리오 V	577.0	574.2	397.3	293.4	1,842.0
1인당 또는 1단위 효과		0.022	0.108	0.003	0.056	

이러한 고용증대 효과는 제주도의 2001년 6월 총취업자 27만 3천명의 적게는 0.4%에서 많게는 0.7%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은 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00명과 외국인 100명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지역고용에는 2.2명과 10.8명의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입장객 1,000명당 3명, 시설투자는 1억원당 5.6명의 지역고용이 증대되는 셈이 된다.

축제 개최에 따른 지역고용증대의 시군별 점유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제주시는 66.6%의 비율을 차지하므로 791명(시나리오 I)~1,227명(시나리오 V), 서귀포시는 16.4%의 비율을 차지하므로 195명(시나리오 I)~302명(시나리오 V), 북제주군은 9.4%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므로 112명(시나리오 I)~173명(시나리오 V), 남제주군은 7.5%의 비율

인 89명(시나리오 I)~138명(시나리오 V)이 된다.

<표 25>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의 시·군별 점유 추정치

(단위 : 명)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0.666	0.164	0.094	0.075
순관광객	시나리오 I	1,187.3	790.7	194.7	111.6	89.0
	시나리오 II	1,303.5	868.1	213.8	122.5	97.8
	시나리오 III	1,256.7	837.0	206.1	118.1	94.3
	시나리오 IV	1,373.0	914.4	225.2	129.1	103.0
유효관광객	시나리오 V	1,842.0	1,226.8	302.1	173.1	138.1

3)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

먼저 순관광객개념(시나리오 I ~ IV)인 경우, 소득증대효과는 159.6억원(시나리오 I)~185.4억원(시나리오 IV)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증대 효과는 축제의 총 예산 지출액 81.6억원의 1.9배에서 2.3배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유효관광객개념(시나리오 V)인 경우, 소득증대효과는 250.2억원으로 축제의 총지출액 81.6억원의 3.1배 규모이다. 이를 세분하면, 내국인 77.3억원, 외국인 81.5억원, 제주도민 51.1억원, 시설투자 40.2억원이다.

이것은 섬문화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지역소득에는 29만 5천원과 153만원의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입장객 1명당 3만 3천원, 시설투자는 1백만원당 76만 6천원의 지역소득이 증대되는 셈이 된다.

<표 26> 2001년 축제가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순관광객	시나리오 I	3,891.3	2,928.2	5,113.3	4,023.3	15,956.1
	시나리오 II	3,891.3	4,578.9	5,113.3	4,023.3	17,606.9
	시나리오 III	4,822.4	2,928.2	5,113.3	4,023.3	16,887.3
	시나리오 IV	4,822.4	4,578.9	5,113.3	4,023.3	18,538.0
유효관광객	시나리오 V	7,734.6	8,152.6	5,113.3	4,023.3	25,023.9
1인당 또는 1단위 효과		0.295	1.530	0.033	0.766	

섬문화축제에 따른 지역소득 증대의 시·군별 점유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시는 66.6%의 비율을 차지하므로 106.3억원(시나리오 I)~166.7억원(시나리오 V), 서귀포시는 16.4%의 비율을 차지하므로 26.2억원(시나리오 I)~41.0억원(시나리오 V), 북제주군은 9.4%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므로 14.9억원(시나리오 I)~23.5억원(시나리오 V), 남제주군은 7.5%의 비율인 11.9억원(시나리오 I)~18.8억원(시나리오 V)이 된다.

<표 27>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의 시·군별 점유 추정치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0.666	0.164	0.094	0.075
순관광객	시나리오 I	15,956.1	10,626.8	2,616.8	1,499.9	1,196.7
	시나리오 II	17,606.9	11,726.2	2,887.5	1,655.0	1,320.5
	시나리오 III	16,887.3	11,246.9	2,769.5	1,587.4	1,266.5
	시나리오 IV	18,538.0	12,346.3	3,040.2	1,742.6	1,390.3
유효관광객	시나리오 V	25,023.9	16,665.9	4,103.9	2,352.2	1,876.8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개최에 따라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관광객, 관광수입, 산출, 고용, 그리고 소득부문으로 구분하여 계량적으로 계측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내 시·군별 관광수입 점유 비율은 제주도의 산업별 GRDP를 기초로 하여 시·군별 산업별 사업체의 종사자 수를 가중치로 하여 시·군별 산업별 GRDP를 추론하여 계산된 결과, 제주시 66.6%, 서귀포시 16.4%, 북제주군 9.4%, 남제주군 7.5%로 나타났다.

둘째, 순 관광객 증대에 미친 효과는 내국인인 경우는 13,198명~16,356명, 외국인은 1,914명~2,993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섬문화축제 개최에 따라

직접적으로 유발된 전체 관광객의 증대 효과는 15,112명~19,349명으로 추정되었다. 유효관광객 증대에 미친 효과는 내국인인 경우는 26,233명, 외국인인 5,329명으로 전체 31,562명으로 추정되었다. 즉 섬문화축제 개최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전체 관광객은 직접적인 순관광객의 증대에 비해 약 1.6배 ~ 2.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관광수입 증대효과는 순관광객 개념인 경우, 69.7억원~96.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광수입 증대액은 축제의 총 지출 예산 81.6억원의 0.85배에서 1.18배에 해당된다. 유효관광객 개념인 경우, 관광수입 증대효과는 내국인 77.9억원, 외국인 85.0억원으로 총 16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제의 총 지출 예산인 81.6억원의 2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것은 섬문화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더 유인할 수 있다면,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29만 7천원과 159만 5천원이 각각 증대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 산출증대효과는 순관광객 개념인 경우, 231.9억원~269.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출증대 효과는 축제의 총 지출 예산인 81.6억원의 2.8배에서 3.3배에 해당된다. 유효관광객 개념인 경우, 산출증대효과는 362.6억원으로 축제의 총 지출액 81.6억원의 4.4배 규모이다. 이를 세분하면, 내국인 108.6억원, 외국인 119.7억원, 제주도민 63.7억원, 시설투자 70.7억원이다.

이것은 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지역산출에는 41만 1천원과 224만 6천원의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입장객 1명당 4만 1천원, 시설투자는 1백만원당 134만 6천원의 지역산출이 증대되는 셈이 된다.

다섯째, 고용증대효과는 순관광객개념인 경우, 1,187명~1,373명으로 나타났다. 유효관광객개념인 경우, 고용증대효과는 1,842명으로 순관광객개념으로 접근한 것에 비해 약 1.3배~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용증대 효과는 제주도의 2001년 6월 총 취업자 27만 3천명의 적게는 0.4%에서 많게는 0.7%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은 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00명과 외국인 100명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지역고용에는 2.2명과 10.8명의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입장객 1,000명당 3명, 시설투자는 1억원당 5.6명의 지역고용이 증대되는 셈이 된다.

여섯째, 소득증대 효과는 순관광객 개념인 경우 159.6억원~185.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증대 효과는 축제의 총 예산 지출액 81.6억원의 1.9배에서 2.3배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효관광객 개념인 경우, 소득증대효과는 250.2억원으로 축제의 총 지출액 81.6억원의 3.1배 규모이다. 이를 세분하면, 내국인 77.3억원, 외국

인 81.5억원, 제주도민 51.1억원, 시설투자 40.2억원이다.

이것은 섬문화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지역소득에는 29만 5천원과 153만원의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입장객 1명당 3만 3천원, 시설투자는 1백만원당 76만 6천원의 지역소득이 증대되는 셈이 된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주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섬끼리 연대하여 섬의 고유한 전통예술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1998년에 이어 2001년에 열렸던 세계섬문화축제는 전반적인 기대치와는 달리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제주세계섬문화축제가 원래의 계획과 기대에 어긋났다는 점은 인정해야 하지만, 섬문화축제에 투입된 예산대비 수입이 작아, 적자 축제였기에 실패한 축제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한다. 왜냐하면 행사개최에 따른 사업 결산식 재무분석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의 측면에서는 정(+)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이용해 섬문화축제를 과대평가하거나, 일반적으로 비판되고 있는 실패한 축제에 대한 반론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고 하지만 제주관광 인프라 구축면에서 매우 중요한 축제이기 때문에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조그마한 증거로 제시하였을 뿐이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1998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관련 설문조사결과”, 1998.
- 고성보·김태보·이돈재,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1999.12.
- 고성보·황경수, 『2001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가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제주발전연구원, 2000.10.
- 김규호, “문화적 자원이 지역관광에 미치는 효과분석”, 경주문화엑스포기념 제1회 학술대회, 1998.
- 김규호·김사현, “지역산업연관모형에 의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관광학연구』 제22권 1권, 1998.
- 동국대 관광산업연구소, 『'98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1998.11. 세미나 자료.
- 동국대, 경주대, 위덕대, 『2000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성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2000. 세미나자료.
- 송재호 · 고성보 · 윤동구, “제주도 관광산업의 지역경제효과 분석”, 『경영경제연구』 제2권,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0.8.
- 이강욱,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한국관광연구원, 1997.
- 이강욱, 『문화관광축제의 영향 및 운영효율화 방안』, 한국관광연구원, 1998.11.
- 이춘근,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구유치 타당성 분석』,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0.5
- 이충기, “2002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산업연관 (Input-Output)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22권 3호, 한국관광학회, 1999.
- 제주도, 『통계연보』, 각년도
- 제주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0.
- 정강환, 『이벤트관광전략』, 일신사, 1999.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2000.2.
- 제주도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진흥기본계획』, 2000.10.
- (사)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 기본계획』, 2000.
- (사)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98 제주세계섬문화축제 평가보고서』, 1998.8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2000.
- 통계청 internet site <http://www.nso.go.kr>
- 한국개발연구원, 『2002년 월드컵축구 한국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1995.
-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투입-산출분석』, 1993.
- 한국관광공사 internet site <http://www.knto.or.kr>
- R. E. Miller and P. D. Blair,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Prentice-Hall, Inc., 1985.